

# 스포츠

10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 스포츠동아·동아일보·XGOLF 공동주최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을 찾아라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국내 최대 골프부킹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주최하는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직접 골프장을 찾는 XGOLF 회원들의 평가가 더해져 결정된다. 지난해 '10대 골프장'에 선정됐던 라데나(강원 춘천) 골프클럽의 전경. 스포츠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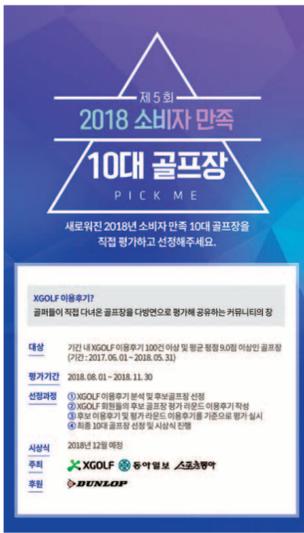
# 치밀한 평가... '10대 골프장' 더 까다로워졌다

평점 '9점 이상' 16곳 1차로 선정  
세부항목 평가서 소비자평가 강화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 증정도

해마다 전국의 50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킨 최고의 골프장을 뽑는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국내 최대 골프부킹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주최하는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직접 골프장을 찾는 XGOLF 회원들의 평가가 더해지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2017년에는 ▲라데나(강원 춘천) ▲백제(충남 부여) ▲사우스스프링스(경기 이천) ▲서원힐스(경기 파주) ▲솔모로(경기 여주) ▲자유(경기 여주) ▲티클라우드(경기 동두천) ▲파인리츠(강원 고성) ▲파크밸리(강원 원주) ▲페덱(경기 여주·이상 가나다순) 골프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달라진 평가 방식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올해 평가 방법을 약간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총

3차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2단계로 줄이는 대신, 좀 더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1차 평가를 통해 후보 골프장을 정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XGOLF 홈페이지(www.xgolf.com) 내 이용후기 100건 이상 및 평점 9.0 이상을 기록한 16개 골프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라데나, 문경, 사우스스프링스, 서원힐스, 솔모로, 솔트베이, 스카이밸리, 안성베네스트, 양지파인, 여주신라, 클럽모우, 파인리츠, 파인밸리, 푸르솔포천, 현대대리츠, 88 등이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

1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평가 라운드를 진행한다. XGOLF 채널을 통해 후보 골프장 예약 후 라운드 한 고객들이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까지 5개로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11개로 확대했다.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평가 항목

을 좀 더 구체화, 세분화했다.

### ●객관성·공정성 '넘버1' 10대 골프장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인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은 소비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상의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XGOLF는 고객들의 적극적인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후보 골프장 이용후기를 남긴 전 고객을 대상으로 Xc ash 더블 적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10곳을 모두 맞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덤퐁의 경품을 증정한다. 평가 라운드 기간 내 XGOLF 채널을 통해 골프장 라운드를 한 고객 중 5회, 10회, 15회를 달성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무료 라운드 기회도 제공한다.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시상식은 올해 연말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XGOL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10개구단, 속속 외인 계약 KBL 뉴페이스 지형도 윤곽

베일에 쌓여있던 프로농구 10개 구단 외인선수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 전자랜드는 지난 3일 머피 할로웨이(28·198cm), 기디 포츠(23·185cm)와 2018~2019시즌 외국인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선수 계약을 공식 발표한 팀은 전자랜드가 세 번째다. 서울 삼성이 지난달 9일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벤 음발라(23·200cm), 글렌 코시(26·183cm)와의 계약을 발표했고, 울산 현대모비스는 새년 쇼터(29·185.9cm), D.J 존슨(25·195.8cm)과 계약했다.

올해부터 각 구단은 기존 트라이아웃&드래프트 제도에서 벗어나 신장제한(장신 200cm이하·단신 186cm 이하) 아래 자유선발을 할 수 있다. 삼성, 현대모비스, 전자랜드 이외에 팀들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대부분 새 외인 계약을 마무리 했다.

5일 해외 농구 이적소식을 다루고 있는 스포르탄도에 따르면 원주 DB는 마커스 포스터(23·191cm)와 계약을 체결했고, 저스틴 킬먼(22·203cm)과도 최종합의만 남은 상태다. 둘 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신인이다. 지난해 외인 드래프트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디온테 버튼(24·오클라호마시티)을 선발해 큰 재미를 봤던 DB는 새 시즌에도 젊음을 믿어볼 심산이다.

전주 KCC는 지난 시즌 전자랜드에서 뛰었던 브랜든 브라운(33·194cm)을 품에 안았고, NBA경력 10년 선수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부산 KT는 2016~2017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최우수선수(MVP)인 마커스 랜드리(33·201cm)와 계약을 마쳤다. 유렐리 그 잔빠가 굵은 대릴 먼로(32·201cm)는 고양 오리온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다.

외국인선수 등록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신장 측정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선수는 계약할 수 없다. 신장 측정까지 모두 마친 팀은 현대모비스 뿐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심승기 기자 sss23@donga.com

"우린 최고!"

1위

이용대 베이징올림픽·아시안게임 금  
스포츠동아, 유료·발행부수 공인 1위

## AG 효자 배드민턴 '세대교체' 바람

여자복식 공희용·백하나·김혜린 발탁  
남자대표팀, 19세 김원호·강민혁 기대

'금메달 효자종목' 배드민턴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5일,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복식에 정경은, 장예나가 빠진다. 남자복식도 김원호가 기용되는 등 기존 간판 선수들 대신 신인들이 대거 발탁됐다"고 밝혔다.

함께 김천시청에서 뛰고 있는 정경은(28)과 장예나(29)는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복식 에이스로 활약해왔고 풍부한 국제대회경험이 장점이다. 그러나 강경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2020도쿄올림픽까지 큰 그림을 그리며 아시안게임 엔트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복식은 베테랑이 빠진 자리에 공희용(22·전북은행), 백하나(18·청송여고), 김혜린(23·인천국제공항) 등이 기용된다. 여자단식은 부동의 에이스 성지현(27·인천국제공항)과 함께 고교생 안세영(16·광주체고)과 전주이(23·화순군청)가 발탁됐다.

남자 대표팀 역시 김원호(19·삼성전기), 강민혁(19·삼성전기), 최솔규(23·요넥스), 서승재(21·원광대)가 대표팀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한다. 모두 파격적인 세대교체다.



'내가 배드민턴 세대교체의 기수!'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대표팀은 파격적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만 19세 김원호(삼성전기)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세대교체는 2020도쿄 올림픽까지 바라본 포석이다. 스포츠동아 DB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된 김하나(29·삼성전기)는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배드민턴대표팀은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남자 주축 선수들이 대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세대교체 바람은 남자팀에 이어 여자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신지애, JLPGA 핫가이드도 메이지컵 준우승

막판 추격전 불구 후쿠다에 3타차 패

신지애(30)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올 시즌 2승째를 아깝게 놓쳤다. 5일 일본 핫가이드 샷포로 국제 컨트리클럽(파72·6493야드)에서 열린 핫가이드 메이지컵(총상금 9000만엔·약 9억엔) 최종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선전했지만 준우승에 만족했다.

불꽃 튀는 추격전이었다. 신지애는 전날 2라운드를 8언더파 136타 공동 2위로 마쳤다. 선두 후쿠다 마미(26·일본)와는 3타 차. 5일 샬롱파스컵 웰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2승째를 노린 신지애는 최종라운드에서 매퍼를 휘둘렀다. 보기 없이 버디 5개만을 낚으며 후쿠다를 맹추격했다. 전반 7~8번 홀에서 1타씩을 줄인 뒤 후반에도 버디 3개를 추가로 잡았다.



신지애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이후 통산 2승이다.

한편 윤재영(31·한화큐셀)은 8언더파 208타로 공동 6위에 올랐고, 이민영(26·한화큐셀)과 배희경(26)은 나란히 6언더파 210타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직전 대회였던 다이토켄타쿠 이이헤아넷 레이디스 황야를(31)의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JLPGA 투어 정상 등극을 노렸던 태극양자들은 10일 나가노에서 개막하는 NEC 가루이자와72 골프 토너먼트에서 다시 우승을 노린다. 고훈준 기자

### 콘도/골프회원권 매도/매수/교환 급매각!

SHINHAN MEMBERSHIP  
신한회원권 주식회사

콘도명	시세(만원)	골프장명	시세(만원)
리슬리조트 24	1,430	송추	25,000
리슬리조트 28	1,900	플라자	4,400
대명 패밀리(회원제/기)	1,500	뉴스프링클(주중/분3천)	3,300
용평 41	2,000	세종메리슨(분1억)	6,700
한화 패밀리(등기제/기)	980	발리오스(분1억3천)	15,500

상담문의 02) 6239 8800

▶ 지정계좌: 우리 1005303439878 ▶ 예금주: 신한회원권주식회사  
\*본회원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2항, 그 외의 관련 법령에 또는 한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아니며, 해당되지 않습니다.